

“공직자 머슴역할 했는지 돌아보아야”

李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철밥통’ 인식 경고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 50%는 줄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 : 머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하지만 말은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 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한 뒤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할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언이 되느냐,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 위기가 있거나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는 부도나면 어쩌

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은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토론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개방화 된 사회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 전의 규제완화와 오늘의 규제완화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본다. 법 공계 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

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웬만한 문제는 다 제거돼 있고 개선방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안이나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감감수 기적재 정부 장관이 체감할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나해와 올해는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예산집행도 막연하게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사고를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김하중 통일·이만의 환경 인사청문회

“통일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만의 “아파트 판 돈 과세 대상인지 몰랐다”

국회는 10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열어 김하중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를 상대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중여세 탈루 의혹과 병역기피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일부와 환경부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중심으로 정책 의의에 집중했다.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1차로 통일부 폐지를 강

력히 추진한다 실패로 돌아가자 2차로 실질적인 통일부 무용론자인 남주홍 카드를 내세웠고 이 역시 좌절하자 3차로 외교부 출신의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이는 이 대통령의 3번째 ‘통일부 유명무실화’ 전략이며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폐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햇볕정책의 전도사였던 김 내정자의 임명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러운 대북 강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내정자는 2004년 4월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

을 6억6천만원에 매입해 2006년 4월 10억8천만원에 매도했다”면서 “아파트 매각 잔금 중 7억원은 배우자와 장녀에게 증여한 의혹이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의 내정자는 “솔직히 말해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 과세당국에서 법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지 않았다”면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판 돈이 집사람의 통장으로 간 절차는 인정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 내정자는 대운화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신과 원칙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사실상 ‘골프 금지령’

집권 초반 공직자 기강 세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류유 의 대통령실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골프를 치는 수석이나 비서관이 없겠지만..”이라고 ‘NO 골프’를 선언했다는 후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실용주의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새벽에 나와 늦은 밤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마당에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사치”라며 “골프를 칠 시간이 없지만 국정을 바짝 조여가는 청와대 기류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으면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 강도높은 자성을 요구한 데 비춰 골프 금지령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간다”면서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할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공무원 사회 속성상 청와대의 골프 금지령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공기업, 산하기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광배하다. 청와대(發) 공무원 기강 잡기의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연필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항락(왼쪽 세번째) 광주일보 편집국장 등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필뉴스

“지방경제 살리기 어려운 곳 부터 먼저”

李대통령,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어찌된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광역적 측면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 큰 효율이 없었다. 경남 따로 부산 따로, 광주와 전남을 따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로, 일례로 전남의 광양이 경남 일부 지역과 연대를 맺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단위로 경쟁력이 떨어지자, 최소한 광역화된 단계를 만들어 줘야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게 키울 수 있다.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 돼 움직이므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지역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고 지방 정책에 관

심이 많은 지방 신문의 적극적이고 바른 협조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성을 앞둔 정치적 현실 앞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만큼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면서 “새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거에 누적된 비효율적 분야를 제거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어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김성이 내정자 임명 강행하나

청와대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문중복 게재와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장관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의 ‘D-데이’는 11일, 10일 현재 청와대측 기류로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이미 3명의 장관 내정자가 중도 탈락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고 더 이상 밀릴 경우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묻어 나온다.

그러나 임명 가능 첫날인 11일에 당장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하는 데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서

는 좀 더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김 내정자가 교수 3명과 여러 강사의 강의록 등을 묶은 책을 마치 혼자 저술한 것처럼 출간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기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해 비판받고 있는 김 내정자가 장관이 되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부끄러울 일이 없었는가”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연필뉴스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17일 개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개회를 채택하고 17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용 방통위 간사도 “한나라당도 최 내정자에 대해 철저한 검

증을 한다는 데에는 야당과 이견이 없었다”며 “더 늦추면 청문회가 무산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18일 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17일 단독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혔고, 이에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하기 위해 청문회 날짜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해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했다.

야초 민주당은 증인채택요구시한 5일을 감안, 17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회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라며 12일을 주장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한편 양당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1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 개원 40주년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3월 3일 (첫진도 시작) **합격** 을 원하신다면 수강료 무료에 대한 유혹 말고도 실제 개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의 강의실 한번 들어보시고 확실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으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중개사분들이 추천한 1등급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초 및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광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PC운영체제 및 장비 인터넷 검색 및 활용 O/A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HTML과 웹 에디터 오피스 실무(1개월 현장실습)
자격요건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선로 기사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사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실무사

●모집대상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부, 가업계좌, 알선실업자, 고용보험적용자) 2. 자활훈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훈련기간 1. 기사, 산업기사 방과후 특별지도 2. 교동비(6만원) 및 사비(6만원) 지급 3. 교재비, 실습비 전액국비지원 4. 훈련중 상의우수자 또는 동일직종 자격증 취득시 장학금 지급 5. 훈련후 채용안정업체 취업알선 6. 훈련후 동일직종 취업시 기간별 취업장려금 지급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우체국 증명 사본 1부 4. 증명사진 3매(3·4cm) 5. 직업훈련 구직등록증 1부(직업훈련 파라자기 교육이수후 발급)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224-4560

= 귀하의 합격!! 無等과 함께 하면 더욱 빠릅니다!! =

7·9급 공무원

전직종 강좌 (합격회원 모집)

정규이론A반 9월 문제풀이반

주강: 2개월, 아강: 3개월(합격반) 3월 31일 (주·09반도반) 5주(합격) 전직종대비 (8월15일~4월15일)

시험의 명문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 ☎ 222-4560 www.mdgosi.co.kr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강 4월 1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원생) 전직종 첫진도

9급 이론출수반 (2개월원생) 사선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론 복구형 앞 (062) 252-0252